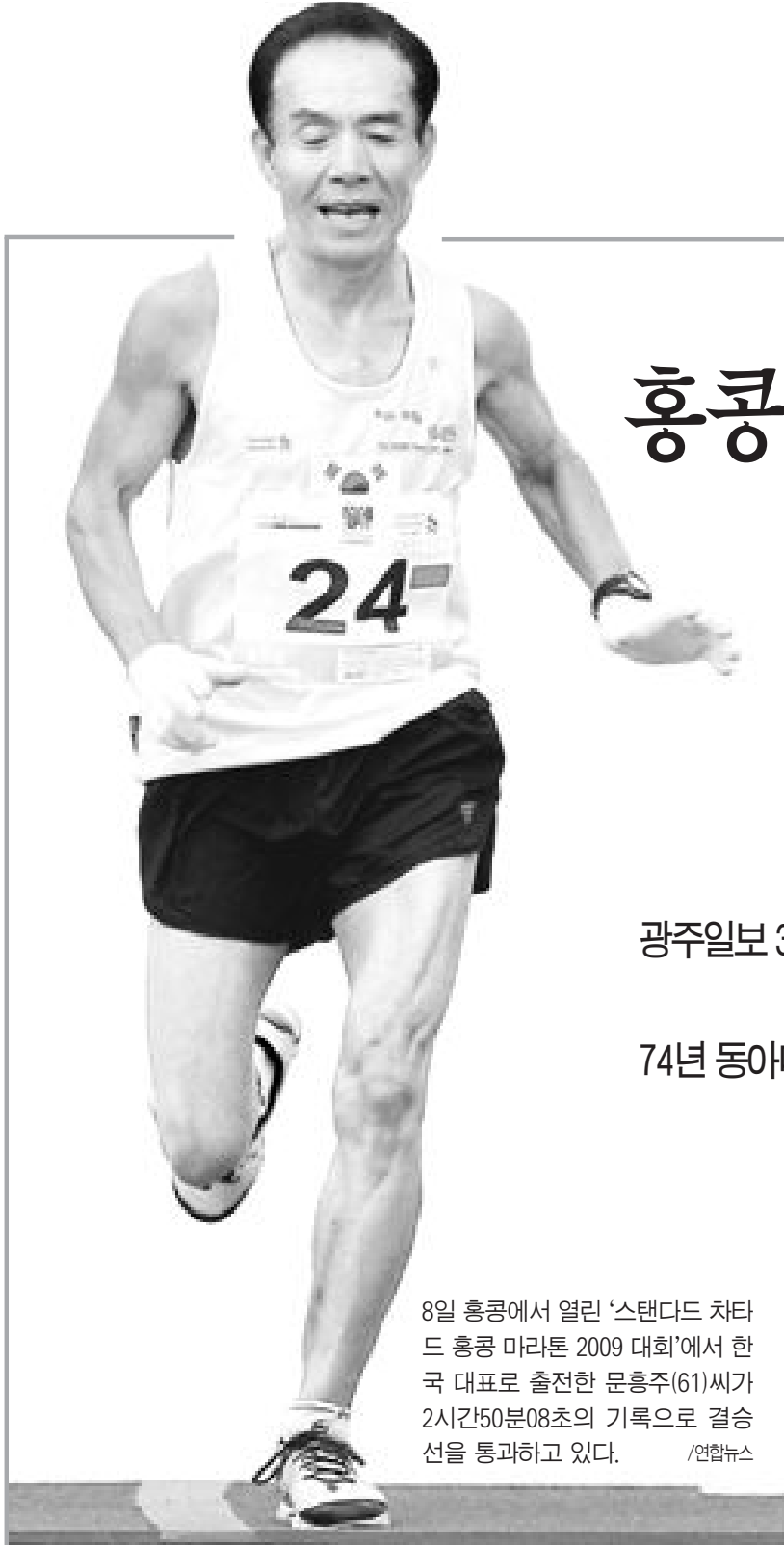


광주 출신 61세 현역 마라토너 문흥주씨



홍콩 국제마라톤서 '서브 3' 해냈다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12·13회) 했던 광주 출신의 60대 마라토너가 홍콩 마라톤 대회에서 '서브 3(sub 3·폴코스)를 3시간 이내에 들어오는 것'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해 화제다.

광주일보 3·1절 마라톤(12·13회 우승)으로 입문

74년 동아마라톤서 세운 한국 기록 10년간 보유

문씨는 8일 홍콩에서 열린 '스탠다드 차타드 홍콩 마라톤 2009 대회'에서 2시간50분08초의 기록을 세웠다. 이번 대회의 유일한 60대 참가자인 문씨는 20~30대 젊은 이들도 혹독한 훈련 없이는 들어오기 힘들다는 서브 3의 벽을 선수 생활을 마감한 지 33년이 흐른 뒤에도 가뿐히 넘은 것이다.

8일 홍콩에서 열린 '스탠다드 차타드 홍콩 마라톤 2009 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출전한 문흥주(61)씨가 2시간50분08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간 교사 생활을 한 후 1984년부터 2005년까지 국군체육부대에서 감독을 맡는 등 후배들을 키우는 일에 치중했다.

문씨는 "후배들을 양성했지만 술·담배를 즐기는 등 내 몸을 훈련하지는 않는 바람에 수축기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는 등 몸이 좋지 않았다"며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2005년 6월 정기검진 후부터 정신이 번쩍 들어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건강을 목적으로 다시 운동을 시작하기로 한 문씨는 과거 선수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30분씩 뛰기 시작했다.

처음엔 관절에 무리도 오고 100m도 뛰지 못하고 헐떡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9개월간의 꾸준한 운동 끝에 2006년 3월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50분의 기록을 세웠다. 이때부터 중앙마라톤을 비롯한 국내 대회에 계속 도전해 2008년엔 하프 코스 등에 36회나 출전하기도 했다.

선수 때도 느끼지 못한 마라톤의 재미를 느낀 문씨는 인터넷 마라톤 카페에서 홍콩 마라톤 대회에 대한 광고를 보고 바로 신청했다. 우승 욕심보다 최고의 기량을 갖춘 외국 선수들과 같이 뛰어보고 싶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

"한 번 마라토너는 영원한 마라토너입니다. 나이 들어도 운동하면 건강해 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죽을 때까지 뛰고 싶습니다."

/광림상기자 kps@kwangju.co.kr

권상우-손태영, 결혼 5개월만에 득남

배우 권상우-손태영 부부가 6일 첫 아들을 얻었다.



7일 손태영 측에 따르면 손태영은 6일 오후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3kg의 아들을 출산했다. 손태영 측은 "원래 출산 예정일이 28일이었는데 예상보다 3주 빨리 출산을 하게돼 우리도 놀랐다. 어제 갑자기 진통이 온 것으로 안다"며 "현재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 전했다.

권상우-손태영은 9개월 간의 교제 끝에 지난해 9월28일 결혼했다. /연합뉴스

장서희 '아내의 유혹' OST 참여

장서희와 이재황이 인기 고공행진 중인 SBS TV '아내의 유혹'의 OST에도 참여한다.



6일 제작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일 발매되는 '아내의 유혹'의 연기자 스페셜 OST에서 노래 실력을 뽐낸다.

이재황은 '용서 못해', '못된 바람', '슬픈 인연' 등 세 곡을, 장서희는 '용서 못해', '날 위한 이별' 등 두 곡을 각각 불렀다.

또 최준용과 채영인도 참여하며, 김용건은 '욕망이', '사랑만은 없겠어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등 트로트 곡 세 가지를 메들리로 소화한다. 제작진은 "드라마의 인기에 따라 주제곡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팬 서비스 차원에서 연기자들의 스페셜 OST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전 전남본부 '전기안전 염원 기원제'



한전 전남본부(본부장 정종필)는 지난 7일 무등산 천제단에서 안전환전기 공급을 비롯, 전기 안전을 염원하는 기원제를 실시했다. <한전 전남본부 제공>

광양제철소 복지재단에 보은통 전달



광양제철소 미니밀부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모은 돼지저금통을 털어 구입한 보은통 50개와 대형 가스버너를 복지재단엔 광양 실로암 마을에 전달했다. <광양제철소 제공>

최인호씨 암 수술후 7개월만에 소설 연재 재개

지난해 6월 암 수술을 받고 집필을 중단했던 소설가 최인호(64)씨가 7개월 만에 소설 연재를 재개했다.



최씨는 9일 출간되는 월간 '샘터' 3월호에 연작소설 '가족' 제39회 '새봄의 휘파람'을 발표한다. '가족'은 최씨가 1975년부터 연재하고 있는 국내 최장수 연재소설로, 최씨는 자신의 가족사를 바탕으로 매호 진술하고 소박한 주변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작까지도 암전하지 못해 하루하루 환자 노릇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먼저 안부를 전했다. /연합뉴스

빌 게이츠 회의장서 모기 날리는 해프닝

말라리아 경각심 일깨워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말라리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회의장에 모기들을 날리는 해프닝을 벌였다.



폭스 뉴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게이츠 전 회장은 지난 5일 'TED 2009회' 연설에서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전파된다. 조금 갖고 왔다. 여기에 풀어놓겠다"며 모기들이 담겨 있는 유리병을 열었다는 것.

게이츠 전 회장은 "가난한 사람들만 걸릴 이유는 없다"고 말하고는 잠시 뜸을 들이며 분위기를 살피다 청중들에게 방금 풀어놓은 모기가 말라리아 모기가 아니라며 안심시켰다고 폭스 뉴스는 전했다. /연합뉴스

영호남 문인들 지리산·섬진강으로 하나 되다

주변 문인들 연대 첫 문학집 펴내

지리산과 섬진강 주변에 사는 '마을 문인'들이 모여 첫 문학집을 냈다.



'지리산 섬진강권 문학연대 대표작 전집(제1권)'이란 이름을 붙인 이 문학집에는 지리산 주변의 생활상을 담은 수필과, 섬진강을 노래한 시 등 66편이 실려 있다.

한국문인협회 회원인 이들의 모임이 시작된 건 지난 2007년 하동의 한 식당에 모였을 때. 문인들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문학연대를 만들고 의기투합했고 '지리산 섬진강권 문학연대(공동대표 이종인·최영욱·김진한·이하 문학연대)'가 꾸려졌다.

이후 임실 사선대 등 '문학동산'을 조성하면서 가끔 모여 오다 이들은 아예 정기 모임과 문학집을 만들

들어 보기로 했다. 지리산과 섬진강은 이들에게 같은 문학적 상상력과 모티브를 주는 터전이며 어머니의 젖통과 같다. 또 모임에서는 '지역감정'이라는 구태를 없애고자 '출신 지명'은 입에 담지 않기로 약속했다. 책에는 섬진강이 각종 개발과 이



상 기후에 메말라가는 현실을 안타가워하는 글도 여러편 실렸다.

문학연대는 이번 제1권을 낸 데 이어 올해 중·단편소설을 결집한 제2권을 펴내는 등 문학집을 정기적으로 낼 계획이다.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인(60·국성문화복지부)씨는 "지리산과 섬진강 주변은 옛날부터 교류가 활발했는데 지도상에 금이 그려지고 '지역감정'이란 게 조장되면서 점차 멀어졌다"며 "거창, 함양, 진주 등도 문학집 발간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문학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성=김계중기자 kjkim@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유형용(법무사)·정애자씨 차남 동훈(광주기독교병원 비뇨기과) 이상욱(신일교통 대표)·강순임씨 장녀 수연(광주 남초등학교)양=14일(토) 낮 12시20분 메리터드 웨딩홀 1층(에메랄드홀)

▲최해구·이영자씨 장남 현철(전남대 교수)·김만재(하남중학교)·김인순씨 장녀 은주(영동대·광주여대 외과교수)양=14일(토) 오전 11시50분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3층 예식홀

▲이주현(전남매일 판매국장)·주영란씨 차남 재현(현대상선)·김진성·박월순씨 장녀 효진양=15일(일) 오전 11시20분 삼부지구 예술의전당 3층(아이리스크홀)

▲이성기(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사무처장)·강희숙씨 장남 동

욱(남선정보)·김순열·정미숙씨 차녀 혜란양=15일(일) 낮 12시30분 웨딩의전당 금호30층(아시아나홀)

▲김희민(전 광주일보 시관부 차장)·한경자씨 장남 현승군 황병연·김금순씨 장녀 은미양=15일(일) 낮 12시30분 갤러리아 웨딩컨벤션 1층 다이아몬드홀

동창·동문회

▲광주복성중 제9회 동창회(회장 장무성) 월례회=9일(월) 오후 6시 해태식당. 062-525-7393.

종친회

▲장흥고씨 월봉공중중(도유사 고재검) 임시총회=9일(월) 오전 11시 양지회관. 010-2600-6519

▲남양송씨 광주종친회(회장 송

찬일) 월례회=12일(목) 오후 7시 생촌동 소담식당. 062-375-1429.

향우회

▲순교 칠광회(회장 김문기) 월례회=9일(월) 오후 6시30분 신성한민어·전어. 062-227-2179.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장례전문과과정 무료공개강의=14일(월) 오후 2~5시 조선대 평생교육원 1층 101호 강의실. 062-230-7700.

▲제76차 불교문화 유적답사=15일(일) 오전 7시30분 안동 불전사 답사. 옛 전남도청 민주의 종각 앞

출발. 062-228-9098.

▲광주대 평생교육원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 강의=28일(토) 오후 2~5시 광주대 도서관 5층. 음, 양택, 수맥, 입향론, 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상 제시(책자 무료제공). 062-670-216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 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모집

▲광주여성의 전화 20기 상담학교 수강생 모집=28일까지, 자원상

당활동을 원하는 자 및 상담에 관심이 있는 자 선착순 30명. 062-363-0487.

▲광주노인지도자대학 제23기생 모집=오는 28일~2월27일까지, 60세 이상으로 심신이 건강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자. 50명 모집. 062-652-7374.

▲국립광주박물관 MUSEUM 아카데미 교육 및 자원봉사자 모집=교육은 15~28일까지 고고학, 미술사, 박물관학 관련 강좌 및 답사, 자원봉사자는 1년 이상 가능한 시민. 062-570-7055.

▲전국아파트연합회 아파트 경비·설비원 모집=광주시내 아파트에 근무할 60~65세 경비원 수시로 모집. 062-236-0032.

부음

▲김근수씨 별세 고은경씨 상배상 상진·유란씨 부친상=발인 9일(월) 그린장례식장 6분향소. 062-250-4406

▲장필호씨 별세 인강·민국·인

정·인경씨 부친상=발인 9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정상용씨 별세 정복국·학중·혜자·혜순·순애·수남·혜숙씨 모친상=발인 10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7분향소. 062-231-8907

▲심순례씨 별세 송영진·영권·영발·영술·영숙씨 모친상=발인 10일(화) 그린장례식장 11분향소. 062-250-4411

▲최성진씨 별세 명우·명국·명선·명철·명찬·명수·명자씨 부친상=발인 10일(화)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062-250-4407

▲김양임씨 별세 한중갑·중태·중선·유임·이성춘·영자·행순씨 모친

상=발인 10일(화) 그린장례식장 5분향소. 062-250-4405

▲장경자씨 별세 김방하·은희·경희·경아·미영씨 모친상=발인 10일(화) 그린장례식장 3분향소. 062-250-4403

▲김만례씨 별세 최훈희·장희·성희·경희씨 모친상=발인 10일(화) 학동 금호 장례식장 401호. 062-227-4383

▲조갑석씨 별세 동만·중만·석만·상만·문금·순금씨 부친상=발인 10일(화) 학동 금호 장례식장 101호. 062-227-4385

▲최정숙씨 별세 서평식·재식·원식·정삼씨 모친상=발인 10일(화)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Advertisement for '프리드' (Freedom) by Daehan Insurance. It features a man in a suit and the phone number 1688-3740. The text includes '대한인생 프리드 선진국형 정액보험' and '현대종합상조'.